

# 바이든 “美中 관계, 올바른 길 위에 있어...진전 이뤄져”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 미중간 대화 재개 긍정적 평가...“블링컨, 대단한 일 해” 백악관 대변인 “대화는 좋은 진전...갈등 아닌 경쟁 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현재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분다면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州)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을 거론하며 “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으로 양국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 “아다피시 진전이 이뤄졌다”며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경색된 미중 관계 속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소통 상황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정부분이나마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잇따라 만나 열어붙은 양국 관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 등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평화적인 해결 방안의 중요성을 전달했고,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권익을 해쳐선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선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으로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는 등 블링컨 장관의 방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며 “대통령은 블링컨이 귀국하면 상세히 브리핑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과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특히 “시 주석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좋은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은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의 협력 분야는 물론 우려 사항을 제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 간의 향후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친강 외교부장의 방미에 미중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상 간 만남 역시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 ‘타이태닉 탐사’ 심해관광 잠수정 실종

미국의 해저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운영하는 심해 잠수정 ‘타이탄’이 19일(현지시간) 실종돼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색에 나섰다.

관광객 5명을 태우고 물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겼다.

실종된 잠수정은 보통 나흘 동안 쓸 수 있는 산소를 채운 뒤 잠수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대서양 해저 약 4천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태닉 호 선체를 보는 관광상품을 시장에 내

냈다. 8일간 진행되는 타이태닉호 잔해 관광 상품의 비용은 1인당 2만 달러(약 34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태닉호는 지난 1912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 빙하에 부딪혀 침몰해 승객 1천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985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태닉호 잔해는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연합뉴스

## 우루과이 ‘나치 독수리상→비둘기상’ 제작 취소

2006년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나치 독수리상(사진)을 녹여 비둘기상으로 만들려 한 우루과이 정부가 관련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나치 독수리상’ 형상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결정이다.



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며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단합부터 해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나치 독일은 교전 중 선체 고장을 일으킨 합정을 중립국인 우루과이(몬테비데오 항)로 이동시켰다가 1939년 침몰시켰다. 독수리상 역시 배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다. /연합뉴스

## 日어민들 “오염수 방류 반대...다른 방법 찾아야”

###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 “해양 방류 외 처분 검토해달라”

일본 정부가 울어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구니오 홋카이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9일 원전 소관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면담하고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베 회장은 요청서에서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고 해양 방류 이외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가리비 등 수산물 많이 수출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홋카이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두루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원전 폐로를 하는데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다면서 “홋카이도는 수산의 대표 지역 격으로 불안을 불식하고 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도 이날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만나 ‘해



일본 정부가 울어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홋카이도와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 현지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 담긴 오염수.

양 방류 이외의 처분 방법을 계속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노자키 테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면담하고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

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폐로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을 견학할 수 있는 일반인 투어를 받기로 했다고 현지 민영방송인 후쿠시마주오테레비가 최근 보도했다.

여행사 투어 견학은 이번엔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후쿠시마현의 승인을 얻은 여행사가 내달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투어 참가자는 원전에 들어가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전 1호기나 오염수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이달 중 방류 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지방 지사	· 금호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